

당신에게 찾아올 변화들

The changes that will come to you

마가복음 4장 21-34절

-
2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나
 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30.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3.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

1.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 4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등경 위에 둔 등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13-16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빛과 소금’ 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변화시키길 원하시는지 생각해봅시다. (21-22절)
2. 예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24절). 예수님을 만나면,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거나 정죄할 때 동시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누가 보이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봅시다.
3. 씨가 자랄 때 특징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27절). 그리스도인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4. 겨자씨 한 알은 ‘매우 작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어질 때’ 놀라운 크기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심어질 때’ 놀라운 결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봅시다.

